

勞 動 側 面 에 서 본 國 際 競 爭 力 의 比 較

—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중심으로* —

金 在 源** · 陳 壽 姬***

〈 目 次 〉	
I. 연구의 구성	1. 일본
II. 요인별 1인당 GDP증가율의 기여도	2. 싱가포르
1. 비교대상국의 거시경제지표의 비교	3. 대만
2. 1인당 GDP증가율의 기여도 분석	4. 중국
III. 弗貨表示 勞賃單價, 노동생산성 및 임금의 비교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IV. 생계비의 비교	VI. 근로태도, 근로의 質 측면에서의 비교
V. 노사관계제도의 비교	VI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자료의 출처

*본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해외 노동경제동향연수단(亞太지역 :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1993. 2. 18~3. 3)의 團長으로 연수단에 참여하여 동남아 해당국가의 勞使 기구를 방문하여 노동동향을 파악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노동부를 비롯한 韓國經總,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동연구원에 감사드린다. 방문기간중 각국의 노동자료 및 동향파악에 협조해 준 金榮喆(한겨레신문), 金正泰(경총노사대책부), 李元熙(한국노동교육원) 柳來旭(화학노련)연수단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한다. 본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한국경총의 高鎮洙대리, 자료실의 文美善氏에게 감사드리며, 원고 및 자료정리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한양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김용범, 이주용, 안재홍군, 학부생 박시현, 류계완, 허찬권군, 강미영양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漢陽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 延世大學校 社會學科

I. 연구의 구성

최근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는 지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노동측면에서 본 국제경쟁력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또는 亞太지역의 경제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를 우리와 비교하여 향후 노동정책의 수립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동부주최 해외 노동경제연수단(1993. 2. 18~3. 3)과 1989년, 1990년 한국능률협회 주최 동남아 노사관계시찰단에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등을 활용하였다.¹⁾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1인당 GDP변동추이의 分解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경쟁대상국에 비해 낮지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며, 제3장에서는 弗貨表示 勞賃單價와 노동생산성의 변동추이를 分解하여 우리나라의 임금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4장, 제5장에서는 각각 경쟁대상국간의 생계비 및 노사관계를 비교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근로태도, 근로의 質 측면에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있고,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7장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1) 金在源, 金順鎬, 『동남아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능률협회, 1990. 3 참조. 참고로 노동부주최 해외 노동 경제연수단이 방문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 만 : 중화민국 全國總公會(Chiness Federation of Labor); 중화민국 勞資關係協進會 (Association of Industrial Relation); 중화경제연구소(Chung-Hw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싱가폴 : 全國僱主聯合會(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 NTUC(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SIM(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중 국 : 중국기업관리협회(China Enterprise Management Association); 중국기업가협회(China Enterprise Directors Association); 노동부(Ministry of Labor), 天津경제기술개발국(Tianjin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中華全國總工會(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일 본 : 일본경영자단체연맹(Nikkeiren or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 일본노동연구기구(Japan Institute of Labor);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JTUC-RENGO, Japan Trade Union Conferderation).

II. 요인별 1人當 GDP 증가율의 기여도

1. 비교대상국가의 거시경제지표의 비교

본 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수준은 낮지 않으나 1인당 GDP는 신흥공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에 앞서 아시아의 경쟁대상국들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사실상 도시국가이고 대만도 국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사실상 이들의 대외무역규모는 한국과 적어도 대등함을 알 수 있다.

(표 2. 1) 아시아 주요 경쟁대상국의 경제지표

	단 위	연도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홍 콩
국 토 면 적	1,000 Km ²	1991	99.3	377.8	0.6	36.0	1.0
인 구	百万名	1993	44.1	124.9	2.8	20.8 ¹⁾	6.0
취 업 자 수	百万名	1992	18.9	64.4	1.6	8.4 ²⁾	2.7 ³⁾
G N P	10억 U.S.\$	1992	294.5	3,704.6	46.8	210.9	95.9
1 인 당 G N P	U.S.\$	1992	6,749	29,794	16,582	10,140	16,507
수 출 (F.O.B)	10억 U.S.\$	1992	76.6	339.9	63.5	81.4	98.6 ²⁾
수 입 (C.I.F)	10억 U.S.\$	1992	81.8	233.2	72.2	72.2	100.3 ²⁾
경 상 수 지	10억 U.S.\$	1992	-4.5	117.6	4.2 ²⁾	8.1	-
미국의 직접투자액	10억 U.S.\$	1991	2.0	-	4.3	2.5	6.4
(수 익 률)	(%)	1991	(4)	(-)	(26)	(17)	(22)
제조업의 취업자	U.S.\$	1991	16,191	61,290	26,932	17,764	13,852 ⁴⁾
1 인 당 G D P							

주 : 1) 1992년

2) 1991년

3) 1990년

4) 1989년

자료 : 통계청, 『주요 해외 경제지표』, 199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ingapore - Country Report*, No. 4, 199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July 1992.

<표 2. 1> 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국토면적, 인구, GDP 등 모든 지표를 통해 볼 때 경제강대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국토면적, 인구, 취업자수 등이 매우

작으며, 대만의 경우도 이들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GDP를 보면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매우 높아 GDP규모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 수입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대등하거나 대만의 경우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1992년 현재 한국만이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부문 취업자 1인당 GDP는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직접 투자액은 한국이 가장 적으며, 수익률도 한국이 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1년 현재 미국의 직접 해외투자의 총규모는 총 4,500億弗이고 평균 투자수익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상을 보면 이들 3개국이 비록 국토면적이나 인구는 한국에 비해 매우 작으나, 경제규모 특히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경쟁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2. 1인당 GDP증가율의 기여도 분석

〈표 2. 2〉-〈표 2. 3〉에서는 1인당 GDP의 恒等式的 분해를 통하여 요인별 1인당 GDP 증가율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다. 〈표 2. 2〉-〈표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弗貨表示 1人當 GDP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① GDP/피용자보수, ② 피용자 보수/피용자수, ③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④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⑤ 15세이상인구/인구 (勞動力 비율), ⑥피용자수/취업자수, ⑦ 1/환율의 7개요인으로 분해된다. 이 중 ①은 노동분배율의 逆數이며, ②는 피용자수 當 연간임금, ③은 1-실업률, ④는 경제활동참가율, ⑤는 인구구성형태, ⑥은 취업자구조, ⑦은 환율요인으로 볼 수 있다. 1人當 GDP는 영업잉여의 비중이 크면서 동시에 피용자 1人當 연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경제활동가능인구 (노동력인구)의 비율이 높고, 취업자 중 피용자수 비중이 높으며, 對美 환율이 낮아져 自國통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GDP가 위축되지 않을 경우에 높아진다. 마지막 환율부분은 달리 표현하면 一國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호조를 보여 무역수지가 늘어나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를 버틸 수 있는 경우 弗貨表示 1인당 GDP는 높아지게 된다. 즉 이들 요인은 크게 영업잉여 요인, 임금요인, 경제활동참가요인, 취업구조요인, 환율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2〉를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를 100으로 한 경우 일본, 대만의 지수는 1970년에 708, 140이었으며, 1985년의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지수는 488, 313, 142, 1991년에는 각

각 412, 221, 130으로 나타나, 1970-1991년 중 비율로 본 1인당 GDP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1991년에도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1인당 GDP가 한국에 비해 121%, 30%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弗貨表示 피용자 1인당 연간임금의 격차는 한국을 100으로 한 경우, 1970년에 일본 305, 대만 126, 1980년 일본 348, 대만 120, 1985년 일본 338, 싱가포르 192, 대만 145, 1991년 일본 290, 싱가포르 115, 대만 114로 나타나 임금격차가 1인당 GDP격차보다는 훨씬 적으며, 특히 1980년 후반에 들어 한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1991년의 경우 싱가포르, 대만의 임금수준은 한국보다 약 15%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되는 점은 제조업 또는 비농림어업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볼 때 1991년의 경우 한국의 임금은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낮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1991년의 경우, 弗貨表示 제조업(비농림어업)의 시간당 임금률을 보면 한국이 각각 \$4.39 (\$4.94), 일본이 \$15.72 (\$16.94), 싱가포르가 \$4.25 (\$4.77), 대만이 \$4.53 (\$5.05)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표 2. 2>에 나타난 피용자 1인당 임금은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나라의 여러 자료가 요구되므로 몇 가지 개연성을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우선 1인당 피용자보수 자료는 分子가 피용자보수(wage bill)이고 이는 국민소득계정에서 추정된 것이다. 시간당 임금률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10인미만의 영세기업이 제외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이런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용자 1인당 피용자보수가 시간당 임금률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체 임금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만 포함되고 임시고, 日傭雇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큰 경우에도 두 통계치간에 괴리가 나타날 것이다.

<표 2. 3>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7개 변수들의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自國通貨 기준) 임금인상률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 및 취업구조요인들의 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2. 2>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하며,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취업자 중 임금을 받는 피용자수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도 '91년 현재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매우 낮고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과대추계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취업자 중 농림어업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16.0%로 일본 8.7%, 대만 12.9%, 싱가포르 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농가가구의 경우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92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전국 60.9%, 남자 75.3%, 여자 47.3%, 농가 70.9%, 비농가 59.1%

로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농가남자 77.4%, 농가여자 64.4%, 비농가남자 75.0%, 비농가여자 44.4%를 보이고 있다.)

〈표 2. 3〉에서 알 수 있는 또 한가지 점은 환률의 변동폭이 弗貨表示 1인당 GDP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표에는 1/환률 변수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환률이 평가절하되고 自國通貨의 가치가 평가절상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할 것이다. 즉 환률이 평가절하된 경우에도 대외경쟁력을 유지하여 수출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弗貨表示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평가될 것이다.

3低기간 중(1986-88), 한국의 弗貨表示 1인당 GDP는 22.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同 기간 중 元貨의 평가절상이 年平均 6.2%에 달한점을 감안하면 국제경쟁력 및 경제 전반적인 成果가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대만의 경우 동 기간 중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年 23.6%, 11.8%나 되는 가운데 달러표시 1인당 GDP가 29.2%, 24.2%나 되었다는 것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싱가포르의 평가절상이 年 3.0%에 1인당 GDP(弗貨표시)가 10.7%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저조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9-91년 기간중의 동향을 보면 일본은 엔貨의 평가절하가 年 1.4%, 1인당 GDP 성장률이 5%로 나타났고,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 NT貨와 싱가포르달러의 평가절상이 각각 年 2.2%, 5.3%를 기록하면서도 달러표시 1인당 GDP가 11.7%, 14.7%나 상승하는 호조를 보였다. 한국은 元貨의 안정속에 16.3%의 가장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표 2. 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 2. 2〉, 〈표 2. 3〉을 종합해 보면 1인당 GDP(弗貨表示) 면에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비율은 점차 줄어 들었으나, 절대금액면에서는 오히려 괴리가 커지고 있다.

② 〈표 2. 2〉를 볼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낮은 이유는 두가지 요인 즉 피용자 1인당 임금이 낮고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낮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을 올리면 1人當 GDP가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一國의 생산성이 높고 이에 상응하여 임금이 인상되어도 국제경쟁력이 유지되는 경우에 1인당 GDP가 제고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과관계의 실정일 것이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 인구구성이나 경제활동참가율면에서 한국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표 2. 2>, <표 2. 3>을 통해 볼 때, 1991년 현재 싱가포르, 대만의 달러표시 1인당 GDP가 한국에 비해 각각 121%, 30%나 높은 이유는 한국의 경우 1인당 피용자보수의 저위(즉 소규모 영세기업의 임금수준이 낮고, 상시고의 비중이 낮은 점 등), 경제활동참가율의 저위(농촌의 인구비율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그리고 취업구조의 불안(즉 취업자 중 피용자수의 비율이 낮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노동력인구의 비중이 낮다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표 2. 4>에서는 요인별 1인당 GDP(弗貨表示)증가율의 기여도를 분해하고 있는데, '89년 이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임금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환률의 평가절하에 따른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향후 한국의 경우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이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급격히 이루어 진다면 과연 이를 극복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일본의 경우 '86-'88년 기간 중에는 환률요인이 지배적이었고, '89-'91년 중에는 임금요인이 지배적이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86-'88년 기간 중에는 영업잉여의 요인이 지배적이고 환률요인이 그 다음으로, '89-'91년 기간 중에는 임금, 환률요인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대만을 보면 '86-'88년 기간에는 환률, 임금요인이, '89-'91년 중에는 영업잉여, 임금요인이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⑤ 한국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3개국의 경우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85년 이전에는 환률이 매우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었고, 3低기간중에도 환률의 절하, 즉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환률요인에 의한 대외경쟁력의 시련을 덜 받고 성장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경쟁상대국에 비해 환률이 비슷하게 평가절하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에서의 불리함을 원가절감이나 품질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을 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⑥ 이상을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 및 비농가의)이 늘어나 임금의 안정하에서도 가계소득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정규근로자 및 피고용자 비율의 증대 등을 통한 고용구조의 개선, 기업의 이윤률의 향상,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등을 통해, 대외여건의 변화나 환률의 불안정하에서도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질의 개선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2) 1인당 GDP 분해: 기초자료¹⁾

	弗貨表示	GDP	비용자보수	취업자수	경제활동연구	15세이상인구	비용자수
	1인당 GDP	비용자보수	비용자수×환율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인구	취업자수
한국							
1970	276(100)	2.961(100)	804(100)	0.956(100)	0.576(100)	0.542(100)	0.390(100)
1980	1641(100)	2.525(100)	3834(100)	0.948(100)	0.590(100)	0.642(100)	0.472(100)
1985	2276(100)	2.529(100)	4532(100)	0.960(100)	0.566(100)	0.675(100)	0.541(100)
1991	6559(100)	2.117(100)	11877(100)	0.977(100)	0.606(100)	0.725(100)	0.608(100)
일본							
1970	1953(708)	2.300(78)	2449(305)	0.988(103)	0.694(120)	0.761(140)	0.664(170)
1980	9068(553)	1.842(73)	13353(348)	0.980(103)	0.671(114)	0.764(119)	0.734(156)
1985	11116(448)	1.843(73)	15324(338)	0.974(101)	0.662(117)	0.783(116)	0.779(144)
1991	27005(412)	1.790(85)	34455(290)	0.979(100)	0.665(110) ²⁾	0.817(113) ²⁾	0.809(133)
싱가폴							
1970	-	-	-	-	-	-	-
1981 ³⁾	5975(332)	2.500(97)	6111(149)	0.971(102)	0.698(119)	0.732(113)	0.788(167)
1985	7126(313)	2.083(82)	8713(192)	0.959(100)	0.689(122)	0.752(111)	0.789(146)
1991	14486(221)	2.222(105)	13635(115)	0.981(100)	0.732(121)	0.768(106)	0.866(142)
대만							
1970	386(140)	2.397(81)	1016(126)	0.983(103)	0.574(100)	0.553(102)	0.509(131)
1980	2325(142)	2.132(84)	4605(120)	0.988(104)	0.583(99)	0.639(100)	0.644(136)
1985	3224(142)	1.987(79)	6562(145)	0.971(101)	0.595(105)	0.668(99)	0.641(118)
1991	8534(130)	2.284(108)	13357(114)	0.985(101)	0.591(98)	0.705(97)	0.671(110)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한국을 100으로 한 경우의 지수를 나타냄.

2) 1990년.

3) 괄호안의 수치는 한국의 1981년 수치에 대한 지수를 나타냄.

〈표 2. 3〉 1인당 GDP 분해:증가율¹⁾

(단위: %)

	弗貨表示	GDP	비용자보수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비용자수	1/환율
	1인당 GDP	비용자보수	비용자수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인구	취업자수	
1971-80	20.3	-1.5	25.1	-0.1	0.2	1.7	2.0	-6.2
1981-85	6.8	0.0	11.2	0.3	-0.8	1.0	2.8	-6.9
1986-88	22.6	-1.4	11.8	0.5	1.1	1.5	1.7	6.2
1989-91	16.3	-1.4	16.7	0.1	1.2	0.9	2.2	0.1
일본								
1971-80	17.2	-2.2	13.3	-0.1	-0.3 ²⁾	0.0 ²⁾	1.0	5.2
1981-85	4.4	0.0	3.9	-0.1	-0.3 ³⁾	0.5 ³⁾	1.2	-0.8
1986-88	29.2	0.2	3.3	0.0	-0.2	0.8	0.3	23.6
1989-91	5.0	-1.1	4.8	0.1	0.5 ⁴⁾	0.9 ⁴⁾	1.0	-1.4
싱가폴								
1971-80	-	-	-	-	-	-	-	-
1982-85	4.8	-4.4	10.5	-0.3	-0.3	0.7	0.0	-1.0
1986-88	10.7	5.4	0.6	0.3	0.1	0.6	0.2	3.0
1989-91	14.9	-3.0	6.8	0.5	1.9	0.1	3.0	5.3
대만								
1971-80	20.0	-1.1	15.4	0.0	0.2	1.5	2.4	1.1
1981-85	6.9	-1.4	9.7	-0.3	0.4	0.9	-0.1	-2.0
1986-88	24.2	0.3	7.1	0.4	0.4	1.0	1.5	11.8
1989-91	11.7	5.0	4.7	0.1	-0.6	0.8	0.0	2.2

주: 1) 매년 증가율의 평균을 나타냄.

2) 1970~80년의 성장률.

3) 1980~85년의 성장률.

4) 1989~90년의 매년 증가율의 평균을 나타냄.

〈표 2. 4〉 요인별 1인당 GDP 증가율의 기여도(1인당 GDP 증가율의 구성비)

(단위: %)

	弗貨表示 1인당 GDP	GDP	피용자보수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피용자수	1/환율	오차
		피용자보수	피용자수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취업자수			
한국									
1971-80	100	-7.4	123.6	-0.5	1.0	8.4	9.9	-30.5	-4.5
1981-85	100	0.0	164.7	4.4	-11.8	14.7	41.2	-101.5	-11.7
1986-88	100	-6.2	52.2	2.2	4.9	6.6	7.5	27.4	5.4
1989-91	100	-27.0	102.5	0.6	7.4	5.5	13.5	0.6	-3.1
일본									
1971-80	100	-12.8	77.3	-0.6	-1.7	0.0	5.8	30.2	1.8
1981-85	100	0.0	88.6	-2.3	-6.8	11.4	27.3	-18.2	0.0
1986-88	100	0.7	11.3	0.0	-0.7	2.7	1.0	80.8	4.2
1989-91	100	-22.0	96.0	2.0	10.0	18.0	20.0	-28.0	4.0
싱가폴									
1971-80	-	-	-	-	-	-	-	-	-
1982-85	100	-91.7	218.8	-6.3	-6.3	14.6	0.0	-20.8	-8.3
1986-88	100	50.5	5.6	2.8	0.9	5.6	1.9	28.0	4.7
1989-91	100	-20.1	45.6	3.4	12.8	0.7	20.1	35.6	1.9
대만									
1971-80	100	-5.5	77.0	0.0	1.0	7.5	12.0	5.5	2.5
1981-85	100	-20.3	140.6	-4.3	5.8	13.0	-1.4	-29.0	-4.4
1986-88	100	1.2	29.3	1.7	1.7	4.1	6.2	48.8	7.0
1989-91	100	42.7	40.2	0.9	-5.1	6.8	0.0	18.8	-4.3

주: 1) 오차는 증가율의 구성비가 100.0 이 되도록 事後的으로 계산한 것임.

Ⅲ. 弗貨表示 勞賃單價와 勞動生産性의 比較

勞賃單價

노임단가는 명목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실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국제경쟁력의 비교를 위해 임금, 생산성, 환율을 이용한 弗貨表示 勞賃單價는 다음과 같다.

$$\text{弗貨表示 勞賃單價} = \frac{\text{명목임금}}{\text{노동생산성(실질)}} \times \frac{\text{환율}}{1} \quad (3.1)$$

〈표 3. 1〉 弗貨表示 제조업 노임단가의 증가율¹⁾

(단위 : %)

	S표시 노임단가	피용자1인당 연간임금	자국통화표시 노동생산성	환율
한 국 1971~80	12.2	26.5	6.2	7.3
1981~85	-2.1	13.0	7.6	7.5
1986~88	13.8	13.5	6.2	-5.5
1989~91	15.4	20.7	5.3	0.3
일 본 1971~80	-	-	5.6	-4.1
1981~85	-1.3	4.1	4.7	1.2
1986~88	21.6	2.1	4.5	-18.3
1989~91	-1.3	4.9	4.8	1.9
싱가폴 1971~80	-	-	-	-
1982~85	6.3	9.9	2.6	1.0
1986~88	1.0	5.1	7.4	-2.9
1989~91	1.31	11.6	3.9	-5.0
대 만 1971~80	-	-	4.7	-1.0
1981~85	1.8	9.7	5.6	2.1
1986~88	16.0	10.3	6.6	-10.4
1989~91	11.3	13.0	4.0	-2.0

주: 1) 매년 증가율의 기간 중 평균을 구한 것임.

자료: 〈부표 1〉

여기서 명목임금, 노동생산성은 自國通貨기준이며, 첫번째 項인 임금/생산성이 노임단가이고 여기에 1/환율을 곱한 것이 弗貨表示노임단가이다. 여기에 로그를 취하고 이를 微分하면 弗貨表示 勞賃單價의 증가율은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및 환율의 증가율을 뺀 것과 같다. 물론 이 경우 세 변수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 한 誤差가 존재하게 된다.

〈표 3. 1〉에 나타난 弗貨表示 노임단가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1986년 이후 특히 1989~91년 기간 중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나, 피용자 1人當 연간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고 환율의 평가절하(즉 自國通貨의 평가절상)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3. 2〉에서는 환율요인을 제외한 자국통화표시 노임단가와 환율요인에 포함된 달러표시 노임단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86년 이후 이 두 지표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986~88년 三低기간 중 일본과 대만은 급격한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한 점이 주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통화표시 제조업 노임단가의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 임금-생산성간의 괴리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표 3. 2〉 제조업 노임단가의 증가율¹⁾

(단위: %)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표시	자국통화 표시	\$표시	자국통화 표시	\$표시	자국통화 표시	\$표시	자국통화 표시
1971-80	12.2	19.3	-	-	-	-	-	-
1981-85	-2.1	5.3	-1.3	-0.5	6.3	7.4	1.8	3.9
1986-88	13.8	6.9	21.6	-2.1	1.0	-2.1	16.0	3.6
1989-91	15.4	14.9	-1.3	0.1	13.1	7.5	11.3	3.8

주: 1) 〈표 3. 1〉과 同一

자료: 〈부표 1〉

노동생산성과 임금

제조업부문 피용자 1人當 연간 임금을 보면(괄호안은 자국통화기준), 1985~91년 기간

중 한국이 2.62배(2.21)배, 일본이 2.25배(1.27배), 싱가포르 1.56배(1.23배), 대만 2.07배(1.39배) 증가하였으며, 1991년 현재 한국의 달러표시 연간임금을 100으로 한 경우 일본 290, 싱가포르 115, 대만 114로 나타났다(표 3. 3).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1985년 이후 한국의 임금인상률이 매우 높아 1991년 현재 한국 \$4.39, 일본과 \$15.72, 싱가포르 25, 대만 \$4.53으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싱가포르,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3. 4). 한편 비농림어업의 시간당 임금은 1991년 현재 한국 \$4.94, 일본 \$16.94, 싱가포르 77, 대만 \$5.05로 나타났다. 이상을 보면 시간당 임금은 대만이 한국보다 다소 높고, 싱가폴은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3〉 제조업부문 피용자 1人當 연간임금¹⁾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원)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엔)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S\$)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NTS)
1970	804	249.6	2,449	881.8	-	-	1,016	40.64
1980	3,834	2,330.8	13,353	3,027.6	-	-	4,605	165.86
1985	4,532	3,944.8	15,324	3,655.5	8,713	19.17	6,562	261.50
1991	11,877	8,713.0	34,455	4,641.5	13,635	23.53	13,557	363.52
1971-80	17.5	25.1	19.1	13.3	-	-	16.7	15.4
1981-85	3.5	11.2	3.0	3.9	9.5 ²⁾	10.5 ²⁾	7.5	9.7
1986-88	18.8	11.8	27.8	3.3	3.8	0.6	19.7	7.1
1989-91	16.5	16.7	3.3	4.8	12.4	6.8	7.2	4.7

주 : 1) 〈표 3. 1〉과 同一

2) 1982~1985

자료: 〈부표 1〉

〈표 3. 4〉 제조업 시간당 임금¹⁾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원)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엔)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S\$)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NTS)
1970	0.198	62	1.055	380				
1980	1.046	636	6.025	1,366			1,007	36
1985	1.325	1,153	6.963	1,661	2,168	4.77	1,548	62
1991	4.393	3,222	15,718	2,117	4,246	6.62	4,532	122
1971-80	19.0	26.5					9.2	
1981-85	4.9	12.7	3.1	4.0	9.7 ²⁾	10.8 ²⁾	23.2	11.4
1986-88	21.8	14.4	26.0	1.8	7.8	4.5	16.5	10.1
1989-91	23.7	23.4	4.9	6.5	16.5	10.6		13.9

주 : 1) 〈표 3. 1〉과 同一

2) 1982~1985

자료 : 〈부표 1〉

노동분배율을 보면 (국내요소소득에 대한 피용자보수의 비율을 나타냄)을 보면 1991년 현재 일본 71.5%, 대만 61.1%, 한국 59.7%, 싱가포르 45.0%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1985-1991년 중 노동분배율의 변동추이를 보면 한국 9.4%포인트 증가, 일본 3.4%포인트 증가, 싱가포르 3%포인트 증가, 대만 2.3%포인트 감소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분배율의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5).

국내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나누어 지는데, 국내요소소득증가분 중 1989~91년 중 피용자 보수의 증가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3개년 비율의 평균), 한국이 72.4%로 일본의 87.4%보다 낮으나 싱가포르, 대만의 56.4%의 증가 대만의 57.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국내요소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이 임금인상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5〉 노동, 자본분배율의 비교¹⁾

(단위 : %)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노 동 분배율	자 본 분배율	노 동 분배율	자 본 분배율	노 동 분배율	자 본 분배율	노 동 분배율	자 본 분배율
1970	40.0	60.0	53.8	46.2	-	-	53.9	46.1
1980	49.4	50.6	66.8	33.2	40.0 ²⁾	60.0 ²⁾	60.9	39.1
1985	50.3	49.7	68.1	31.9	48.0	52.0	63.4	36.6
1991	59.7	40.3	71.5	28.5	45.0	55.0	61.1	38.9

주 : 1) 국내 요소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따라서 노동분배율+자본분배율은 100.0이 됨.

2) 1981

자료 : 〈부표 1〉

〈표 3. 6〉에 나타난 시간당 명목임금-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를 보면(단위, %포인트) 1986~89, 1989~91년 기간 중 한국이 5.9, 13.3, 일본이 -2.7, 1.7, 싱가포르이 -2.9, 6.7, 대만이 3.5, 9.7로 나타나, 4個國中 한국의 임금-생산성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 7〉~〈표 3. 9〉에 나타난 全産業, 제조업, 농림어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자국통화기준으로 보면 1986년 이후 한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달러표시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만보다 낮고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1년 현재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은(달러기준) 한국을 100으로 한 경우 일본 439, 싱가포르 221, 대만 170으로 나타났다(표 3. 7). 1986~91년 기간 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자국통화기준(괄호내는 달러표시기준)으로 한국이 5.8%(8.9%), 일본 4.7%(15.9%), 싱가포르 5.7%(10.0%), 대만 5.3%(12.7%)로 나타나, 자국

통화기준으로는 한국이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다소 높으나 달러표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1년 현재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한 경우,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각각 468, 177, 115로 나타나 생산성이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뒤지고 대만에 비해서도 15%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8).

〈표 3. 6〉 제조업의 명목임금·명목생산성 증가율의 비교¹⁾

(단위 : %)

	자국통화표시 시간당임금	피용자1인당 연간 임금	노동생산성
한 국 1971~80	26.5	26.5	23.6
1981~85	12.7	13.0	13.2
1986~88	14.4	13.5	8.5
1989~91	23.4	20.7	10.1
일 본 1971~80	-	-	5.6
1981~85	4.0	4.1	4.7
1986~88	1.8	2.1	4.5
1989~91	6.5	4.9	4.8
싱가폴 1971~80	-	-	-
1981~85	10.8	9.9	2.6
1986~88	4.5	5.1	7.4
1989~91	10.6	11.6	3.9
대 만 1971~80	-	-	4.7
1981~85	11.4	9.7	5.6
1986~88	10.1	10.3	6.6
1989~91	13.9	13.0	4.0

주 : 1) 〈표 3. 1〉 과 동일

자료 : 〈부표 1〉

마지막으로 농림어업부문은 노동생산성은 1991년 현재 한국을 100으로 한 경우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각각 270, 486, 114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농림어업 노동생산성이 1981~88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체 또는 감소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7〉 전산업 노동생산성¹⁾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원)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엔)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S\$)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NT\$)
1970	8,307	2,580.1	8,760	3,153.6	-	-	3,853	154.12
1980	6,491	3,945.7	20,054	4,547.1	-	-	7,581	273.04
1985	6,204	5,400.6	22,005	5,249.0	14,329	31.53	8,357	333.04
1991	10,467	7,678.8	45,958	6,191.0	23,146	39.95	17,802	477.35
1971~80	-1.9	4.4	9.3	3.7	-	-	7.1	5.9
1981~85	-0.8	6.5	2.0	2.9	2.6 ²⁾	3.6 ²⁾	2.0	4.1
1986~88	14.2	7.6	27.4	3.2	7.9	4.7	20.0	7.2
1989~91	4.5	4.5	0.9	2.4	8.8	3.3	7.5	5.1

주 : 1) 〈표 3. 1〉과 同一

2) 1982~1985

자료 : 〈부표 1〉

〈표 3. 8〉 제조업 노동생산성¹⁾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원)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엔)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S\$)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NT\$)
1970	8,687	2,698.1	8,232	2,963.5	-	-	3,721	148.8
1980	8,031	4,881.9	22,427	5,085.1	-	-	6,383	229.9
1985	8,042	7,000.7	26,853	6,405.5	13,285	29.23	7,580	302.1
1991	13,294	9,752.1	62,275	8,389.0	23,509	40.58	15,304	410.4
1971~80	-0.3	6.2	11.3	5.6	-	-	5.8	4.7
1981~85	0.2	7.6	3.8	4.7	1.6 ²⁾	2.6 ²⁾	3.6	5.6
1986~88	12.7	6.2	28.6	4.5	10.7	7.4	19.1	6.6
1989~91	5.1	5.3	3.2	4.8	9.3	3.9	6.3	4.0

주 : 1) 〈표 3. 1〉과 同一

2) 1982~1985

자료 : 〈부표 1〉

〈표 3.9〉 농림어업 노동생산성¹⁾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원)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엔)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S\$)	\$표시	자국통화표시 (千NT\$)
1970	4,613	1,432.8	2,483	893.9	-	-	1,644	65.8
1980	2,706	1,645.2	5,325	1,207.4	-	-	2,857	102.9
1985	3,185	2,773.1	6,489	1,548.0	15,270	33.60	2,767	110.3
1991	4,452	3,265.8	12,026	1,620.0	21,639	37.35	5,088	136.4
1971~80	-4.2	1.7	8.9	3.3	-	-	5.9	4.7
1981~85	3.4	11.0	4.2	5.1	8.5 ²⁾	9.6 ²⁾	-0.6	1.4
1986~88	10.8	4.3	25.2	1.3	12.4	8.6	20.0	7.0
1989~91	1.5	1.5	-1.3	0.4	8.2	2.7	2.9	0.6

주 : 1) 〈표 3.1〉과 同一

2) 1982~1985

자료 : 〈부표 1〉

IV. 생계비의 비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임금만족도는 지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임금상승률이나 임금수준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싱가포르나 대만과 거의 비슷함을 보았다. 이는 정책당국자에게는 큰 딜렘마가 아닐 수 없다. 즉 임금이 지속적으로 경쟁상대국보다 높게 상승할 경우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더 소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근로자의 생계비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이토록 불만을 느낄 정도로 실제 생활하는데 드는 생계비가 높으냐하는 점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도 생계비가 높아서 생활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UN직원들의 생활수준과 관련된 소매물가지수를 뉴욕을 100으로 하여 도시별로 비교해 보면(괄호안의 수치는 주거비를 제외한 경우임, 1991. 12월 기준), 동경 151(133), 홍콩 130(99), 제네바 124(128), 마드리드 118(122), 본 116(129), 로마 108(117), 런던 108(113), 파리 107(114), 서울 105

(99), 북경 96(106), 몬트리올 92(99), 워싱턴 D. C. 91(97), 싱가포르 90(89), 방콕 86(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 외국인 기준 생계비는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일본은행 조사통계국, 『국제비교통계(1992)』, p. 99)

둘째, '89~'91년기간 중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률을 보면 한국이 각각 3.7%, 8.0%, 일본이 1.6%, 2.9%, 싱가포르가 -0.5%, 3.1%, 대만이 0.3%, 4.0%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주요국의 칼로리 및 단백질 섭취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日當 칼로리 섭취량은 2,870 Kcal로('89년), 미국(3,652)보다는 낮으나 일본(2,916), 대만(2,812)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단백질 섭취량도 한국이 89.6g으로 일본(93.4), 대만(78.2), 미국(106.7)에 비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나, 동물성단백질의 섭취비율은 한국이 30.7%로 일본(53.6%), 미국(67.5%), 필리핀(35.8%) 등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권순원, 「국민생활 수준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개발연구』, 1991. 가을, p. 118) 즉 한국의 경우 칼로리, 단백질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동물성단백질 섭취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곡류와 채소류에 주로 의존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가구의 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한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주택보급률이 아직도 낮은 실정이며(한국의 경우 1990년 50.6%), 인구 千명당 주택수도 한국의 경우 '90년 현재 172戶로 일본 342戶, 미국 419戶 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권순원, 전게서, p. 119. 참조) 한편 임대아파트의 月賃貸料는('87년 기준) 서울이 87千엔으로, 동경 105千엔 보다는 낮으나, 타이페이 83千엔 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이며, 賃貸料의 大卒 初賃에 대한 비율은('89년 기준) 동경 57.0%, 타이페이 135.4%, 서울 76.7%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료(또는 전세, 월세)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권순원, 전게서, p. 120. 참조)

다섯째, 一般財政의 지출구성 중 사회개발의 비중이(괄호내는 사회보장의 비중) 한국('89년)이 33.7%(7.6%)로 일본('70년) 56.7%(14.3%), 대만('89년) 39.1%(17.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교육, 주택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중이 높아져 이것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권순원, 전게서, p. 129.)

이상에서 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생계비의 부담이 다른나라에 비해 적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개관해 보았다. 이제 각국의 도시가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계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경우 가구당 인원 수가 일본보다 많고 대만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나, 가구당 취업인수는 1990년의 경우(괄호내는 근로자가구) 한국이 1.39(1.43)로 일본 1.60(1.64), 대만 1.77보다 현저히 낮다. 가구주의 평균연령도 일본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② 이들 가구당 인원수, 취업인원수, 가구주의 평균연령을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로 보면,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많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경우 한국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80~90년 기간중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줄어들었으나, 1990년 현재에도 가구원의 42.2%(가구당 평균 1.77명)가 일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 5분위가구의 50.9%나 되고 있다. 가구당 취업인수가 2인 이상 되는 가구의 비중은(1990년) 평균 54.7%, 1분위가구 27.4%, 2분위가구 39.6%, 3분위가구 53.8%, 4분위가구 68.6%, 5분위가구 84.2%에 달하고 있다.

③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패턴을 비교해 보면, 식료품의 비중은 한국이 1980~92년 중 42.6%에서 30.4%로 줄어들어, 일본의 23.7%이나 선진국의 12~25% 보다는 높으나 대만의 32.3%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비지출이 높은 費目은 보건·의료, 교육, 피복·신발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별 소비패턴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 일본 모두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보건·의료의 비중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④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의 수입,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 및 소비지출의 격차는 대만,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낮게 나타나고 가계흑자율(평균저축성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성향, 저축성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제1분위계층의 소비성향이 95.7%에 비해 제5분위의 63.6%에 비해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격차는 대만의 경우에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⑤ 소득계층별 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한국이 일본, 대만에 비해 제1, 2분위계층의 비중이 너무 낮아 십분위계수로 본 분배는 불형평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Gini 계수로 본 소득분배는 일본, 대만보다는 불형평도가 크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92년 현재 근로소득 중 세대주수입의 비중은 일본이 82.0%로 한국의 72.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세대주의 실수입 중 63.3%는 정기수입이고 나머지 18.7%가 임시수입, 상여금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득 중 기타가구원소득이 12.6%, 사업 및 부업소득이 2.9%, 기타소득이 11.8%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8~92년 기간 중 가구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타소득, 기타가구원소득이 늘어났다.

소득5분위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주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타 가구원소득은 늘어나며, 기타소득의 비중은 5분위 계층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일수록 세대주수입 특히 정기수입의 비중이 높고 기타가구원 소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한국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⑦ 한국의 경우 1981~92년 기간 중 주거비 비용은 4%대에서 큰 변동이 없고 월세도 2-2.8% 범위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평가액은 동기간 중 6.7%에서 7.7%로(근로자가구는 6.9%에서 8.5%), 자가평가액은 10.7%에서 16.5%(근로자가구는 9.6%에서 15.2%)로 크게 늘어났음을 보이고 있다. 동기간 중 소비지출의 비중은 줄어들고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V. 노사관계제도의 비교

일 본

92년중 일본경제는 1.9%의 성장, 2.1%의 소비자 물가 인상, 2.3%의 실업률, 109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93년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로 외부 경제여건이 유리하지 않으며, '92년 8월 일본정부가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890억 달러 상당의 긴급조정 조치를 승인하였으나 올해의 성장률도 작년에 이어 저조할 것이 전망된다. 한편 엔화의 美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90년 145, 91년 135, 92년 125로 급격한 평가절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엔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의 감소 등으로 93년에도 상당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노동성은 남아도는 인력을 재훈련 전환배치 시키는 회사에 대한 국가의 보조, 즉 고용안정 보조금의 지급조건을('92년 10월부터 1년간에 걸쳐)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수입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92년 5월 현재 불법 해외인력은 27만8,829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대비 70%나 증가한 수치이다. 93~94 회계연도 중 1만5천~2만 명의 해외근로자가 개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의 작업조건과 업무성과에 대한 감독은 정부가 맡고 있다.

92년 중 일본의 실질임금과 생산성은 모두 저하 되었다. 우선 실질임금이 저하된 이유는 88년 이후 근로시간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88년의 年 2,100시간에서 92년

1,985시간으로 단축됨).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파트 타이머의 증가, 정규사원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3차산업 종사자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93년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日經連聯은 임금동결을, 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은 7% (또는 월 2만 엔 이상의 인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連合의 7% 인상요구율의 근거는 성장률,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산업별 차등을 감안한 방식으로, 일본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에서 안정적임을 감안할 때, 이 방식은 사실상 생산성임금제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경련의 임금동결 주장의 근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기준 원리와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기업의 지불능력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92년 일경련의 임금인상 제시율은 4.95%였음). 일본의 경우 노조결성률은 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75년 34.4%, 91년 24.5%), 노사분규는 7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하고 있으나, 임금교섭시 노사간에 협조적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경영정보의 共有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정부의 立法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노사협의회, 分任班 활동, 提案제도 등을 통해 모든 측면의 기업활동에서 본래의 고유기능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노조수첩의 활용등을 통해 경영정보 표준화와 체계적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Poole pp. 16-18, Ochiai pp. 151~155 참조). 즉 경제민주화 및 산업민주화가 자연스럽게 기업의 고유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이라고 보아진다.

싱가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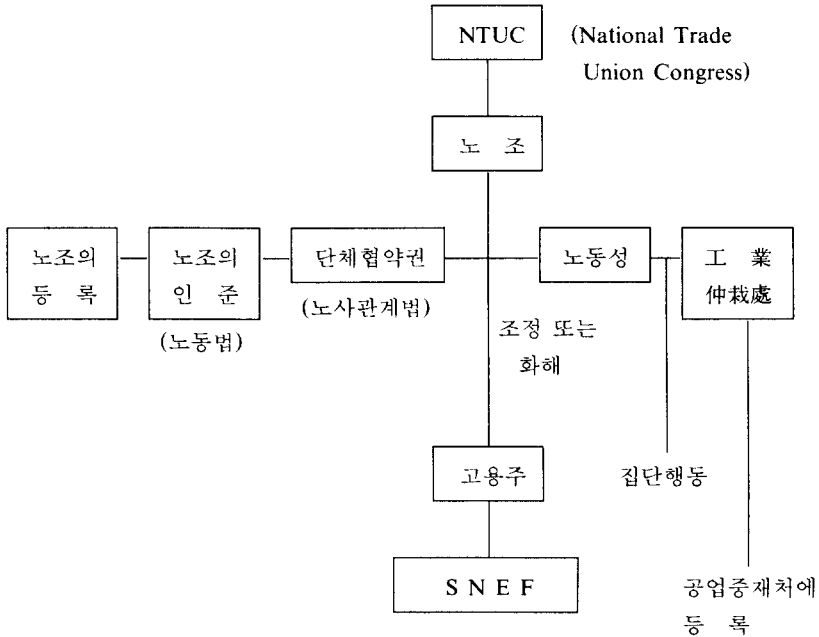
싱가폴의 경제는 건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2, '93년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을 개관하면, 성장률은 5.8%에서 9%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2.3%에서 2.5%로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美貨 33억달러가 전망되는 등의 안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달러의 미화에 대한 환율은 90년 1.81, 91년 1.73, 92년 1.63, 93년 1.58로 빠른 속도로 自國 통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실한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싱가폴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87년 이후 실질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86년 이후 추진된 NWE(국가임금위원회)의 임금안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공을 거둔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는 1972~84년 기간 중에는 安量的(quantitation)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85~86년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자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원칙이 제시되었고, 87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실적 및 개개인의 능력에 연계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87년 이후 定性的인(qualitative)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범위를 두어 임금인상률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임금위원회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i)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승意, ii) 노사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소위 *give and take* 태도와, iii) 근로자에게 자신의 기여분에 상충하는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85~86년 중 말레지아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임금동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이유는 과거에 근로자에 대한 분배제도가 불합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임금가이드라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勞使政 三者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해야 한다. 즉 임금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는 1) 성장률, 2) 생산성, 3) 인플레이션, 4) 국제경쟁력 등이며 NWC는 이들 요인을 감안하여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WC의 구성은 의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가 직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1972년 NWC가 구성된 이후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의 Lim교수가 지금까지 의장직을 맡고 있다. 국가 임금위원회는 의장 외에 각각 14명의 勞使代表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대표는 미국인 2명, 독일인 2명, 일본인 2명, 싱가포르인 4명, 그 밖의 2명 등 인종별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 싱가포르 경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NWC의 권고안의 특징을 보면 86~89년에는 신축적 임금제도와 생산성 증가율이 이루어진 후 임금인상이 時差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9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단체협약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5.1 참조). 우선 노조의 등록은 종업원 7인이상 사업체에서 기업별 노조를 결성한다든가 또는 同種産業內에서 產別勞組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도 자발적으로 인준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노사가 노조의 설립을 놓고 異見을 보일 경우 노동성이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50%이상의 종업원이 찬성하면 이 경우 노조가 인준(recognition)된다. 후자의 경우는 강제적 인준(compulsory recognition), 전자의 경우는 자발적 인준(Voluntary recognition)이 된다.



(SNEF :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도표 5.1〉 싱가포르의 단체협약 절차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진행되는데, 이때 개별노조가 전국노련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지 여부는 개별노조의 의사에 달려있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로는 경영자 총협회(SNEF)가 있다. 파업등 집단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조합원의 비밀투표에 회부하여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파업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50%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공업중재처에서 노사공익위원 三者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의사결정권은 중립적인 공익위원이 갖게 마련이다. 이 의장의 지위는 대법원판사와 동급이며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에까지 이르는 경우, 중재처에서 다시 노사간에 조정을 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노사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재에는 自發性仲裁(voluntary arbitration)와 強制性仲裁(compulsory arbitration)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노사가 동의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후자의 경우 노사분규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우 노동성과 대통령이 중재를 명하게 된다. 오일, 가스 수도 및 전력산업의 경우 강제성 중재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수송, 은

행, 항공 등은 essential service業으로 규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노사분규가 중재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工業仲裁處에서 중재를 하며 이 경우 의사결정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립적 공익위원이 갖고 있으며, 중재단계에서 다시 노사간 조정을 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제도를 노동성의 노사관계국장인 Ong Yen Her氏는 노사가 모두 승리하는 win-win狀況이라고 일컬고 있다.

Manager, 관리직 그리고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노조원이 될 수 없으며 하위직 조사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노조는 그 기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노조연맹 사무국장등 많은 노조출신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간 교섭범위는 1968년 이전까지는 그 제한이 없었으나, 그후 경영권에 해당되는 사항중 다음의 사항은 노사관계법에 의해 교섭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i) 채용 및 임명, ii) 고용계약의 만료나 해고, iii) 승진, iv) 근로자의 이동, v) 직책의 한정, vi) 감원 등이 이에 속한다. 해고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자는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노동성에 소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이동중 하위직으로의 이동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감원은 조직의 改編, 技術의 變化, 기타 경제적 이유 등의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losed shop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싱가폴의 단체협약 절차를 보면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며 노사간 갈등적 관계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win-win 狀況'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노사분규가 거의 없고 파업은 78년 이후(단 1건을 제외하고는)전무한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91년 8.1%, 92년 7% 수준이었고 93년에도 7%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 만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분위기는 '92년 12월의 선거 후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도 밝은 것으로 보인다. '92, '93년 중의 몇몇 경제지표를 보면, 성장률은 6%, 소비자 물가지수는 5%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각각 1.4%,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美달러에 대한 NT의 환율은 92년의 25.0%에서 93년에는 25.3%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생산성은 92년

상반기중 5.9% 증가 되었고, 92년 5월 현재 임금수준은 2만5,434NT\$(약 81만4천원)으로 1~5월 중 전년동기 대비 12.5% 인상되었고 노임비용은 3.9% 인상되었다.

대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89년 8.5%, 90년 10.5%, 91년 13.2%, 92년 12.0%로 89~92년 기간중 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현재 時間當 최저임금 수준은 51.5NT\$(약 1,650원)에 달하고 있다(92년 이전에는 임금을 월, 일당 기준으로 산정하다가 92년부터 월, 시간당 기준으로 변경했음).

대만은 고환율, 고임금, 地價의 상승, 노동력 부족 등 경제구조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나 노사분규는 89년 이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원활치 못한 공공부문의 私營化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92년 중 5천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는 등 악화된 노사공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노사관계는 과거에는 경영주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장이 폐쇄되면 노사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중요성을 노사 공히 인정하고 있다. 노사간 교섭은 각 기업의 중요성을 노사 공히 인정하고 있다. 노사간 교섭은 각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물 보다는 신축적인 방법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하루에 3시간 이내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 운용에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축성을 띠고 있는 노사관계 및 경영철학을 Acer社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방식이나 노사관계의 유형이 미국의 IBM社와 같은 전형적인 노조 없는 기업을 추구하고 있고(Strategically Unionized Organization) 임금 지급체계도 성과급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회사는 선진국의 첨단산업의 경영방식이나 노사관계 운용방식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만의 노사관계가 기업의 성격에 따라 매우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다양한 노사관계를 권유 또는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Acer社의 경영 및 노사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경우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네가지 원칙-즉 사람의 선의(Goodness)를 믿으며, 진보주의를 취하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활용하며, 소비자의 만족을 중요시 한다. Acer社의 경영철학은 이상의 기업정신에 입각하여 종업원, 소비자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존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회사는 종업원을 신뢰하고 보호하며, 부하는 상사를 존경하고, 종업원 개개인은 직장을 통한 자기만족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Acer社의 경우 time card制가 없고, 상급-하원직원 간의 서로의 직책명이 아닌 이름(first name)을 부르며, 실수도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실수를 용인하며, 협동(teamwork)을 중시하고, 직무의 성질만큼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중요시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기업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결과로는 종업원간에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창의성이 제고되며, 이직율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책임감이 제고되고, 직무성취도가 높으며, 종업원 개개인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회사의 의사소통 기구는 종업원 대표자 기구(Employee Representative Association)이며 사실상 노조의 대표가 이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며 특히 회사의 경영 및 미래에 대한 종업원들의 건의는 이 기구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회사와 종업원간의 의사소통의 중점은(사용자의 최종의사결정 전에) 경영정보 등에 대한 설명, 종업원의 career development plan의 설정, 종업원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노사관계의 강화, 생산성 제고방안 등에 있다.

종업원에 대한 카운셀링 제도도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종업원들이 회사 또는 회사밖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고, 이외 고충처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대화의 창구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영방식을 보면 IBM 등 선진국의 첨단산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이트칼라 중심의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방식이 엿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식 경영철학에 기초를 둔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일견 동서양의 장점을 접목시킨 형태로 보인다.

이 회사의 경우 노조가 있으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노조와의 협의보다는 종업원의 경영참여의 유도를 통해서 사실상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임금을 노조와의 협상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결정하되, 종업원에게 임금인상률을 제의하기전에 회사가 물가조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종업원 대표자 기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정식기구이며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익을 대변하나 이 기구에서는 결정권은 없고 특정사안을 제안할 권리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대표의 선출은 각 지사 별로 종업원 50명당 한 명의 비율로 선출되며 본부에서는 지사의 대표 중에 다시 선출하여 약 30명의 대표가 선정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노동법은 형식상 존재하고는 있으나 국가가 이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노사관계가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만정부가 깨끗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원칙이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정보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Acer사의 부사장인 Wilson Chen에 의하면 대만의 경우 노조의 결성은 의무적이나(일정 규모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실상 제조업의 20%미만에만 노조가 있으며 노조의 활동이 활발한곳은 5%미만이라는 私見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만의 노사관계는 갈등형이라기 보다는 협조형이고 노사분규도 표면에 나타난 수치만큼은 심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대만의 임금은 앞의 Acer사의 예에서 보았듯이 사용주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능률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연말 보너스로 사용주가 결정한다. 대만경제연구원에서는 국립 대만대학 법학원 경제학과와 吳 忠吉교수에 의하면 대만도 한국의 노총과 같이 全國總工會가 있고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조결성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행동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5. 1>에 나타나 있다.

<표 5.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적용

	30인 이상 사업체	30인 미만 사업체
단결권	의무적	임의적
단체교섭권	임의적	임의적
단체행동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함 ¹⁾	左 同

1) 우선 노조대표의 모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며 노사법으로 구성된 5인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조정을 함.

또한 단체행동권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노조대표의 모임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고, 노사법으로 구성된 5인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정부가 직접 조정에 개입하는 등의 제약으로 사실상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중 국

중국은 개방화정책의 실시에 힘입어 성장률이 90년 5%, 91년 7%, 92년 12~13%로 급

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90, 91년에는 2.1%, 3.4%로 안정되었으나 92년에는 8%, 93년에는 12.0%의 인상이 예상되어, 고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성장 전망치인 9.5%를 8%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90년 120억 달러, 91년 138억 달러, 92년 100억 달러, 93년에는 75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美貨에 대한 Rmb의 환율은 90년의 4.78에서 92년에는 5.45, 93년에는 5.95로 전망되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내용은 이미 밝혀졌으나, 이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아직도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요약해 보면 첫째, 안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어도 千萬名에 대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고도의 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과 국가관리 방식의 개선 및 국가개입의 제한 등 개혁과 보수간의 갈등의 조화문제 셋째, 개혁정책의 추구로 인한 지역간 개인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을 축소하는 문제 넷째, 국가관리 체제에 익숙한 경영인들의 경영능력 제고 문제 다섯째, 경제개혁시 뒤따르는 노동개혁의 실시와 자국기업과 외국투자자 보호간의 상충관계 조정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개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나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평생직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적 혜택을 주었던 소위 鐵飯盒(iron rice bowl)을 깨뜨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의 강구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이들 4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국 방문국 모두 노사관계중 갈등적 측면보다는 협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방문단이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노동부 등을 방문한 경우 어느 기관을 방문했는지를 착각할 정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거시적 국가경쟁력과 미시적 회사발전을 통한 'win-win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나 노동사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함을 느낄 수 있

었고, 각국의 자료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으며, 이 원인의 하나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세제, 근로태도를 보면, 일본의 경우 몇몇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근로행태에 관한 괴리는 있으나 그 격차가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았고 생활수준, 근로조건, 일에 대한 열정면에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93년의 임금인상은 일본의 경우 3~4%, 싱가포르의 경우 7%가 전망되나, 이들 나라의 경우 임금보다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문제를(나라마다 그 정도는 다르나) 더 염려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노사간 임금교섭에 협력적 관계가 강조되고 있고, 경기침체 및 해고의 우려 등으로 인해 노조의 立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VI. 근로태도, 근로의 질 측면에서의 비교

근로의 質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에서 조사한 각국의 노동력 평가지표의 점수 및 순서를 <표 6. 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92년 기간 중 종합지표는 한국의 경우 5위에서 12위로 하락한 반면, 싱가폴은 전 기간에 걸쳐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4위에서 3위, 대만은 2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다. 이 노동력 평가지표는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표 6. 1참조), 1980~92년 중 한국의 순위를 보면 제도적 측면이 2위에서 5위로, 상대적 생산성이 16위에서 12위로, 근로태도가 4위에서 24위로, 기능수준이 21위에서 22위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근로태도의 급격한 하락(점수로는 92점에서 52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의 質을 나타내는 지표의 국가별 순위는 1992년 현재 싱가폴, 스위스, 일본, 벨지움, 대만, 독일, 네델란드,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質은 작업성과(6개 기준, 40%), 노동력의 특성(6개 기준, 35%), 노동력의 조직과 적용(6개 기준 25%)로 측정된다.

한편 <표 6. 2>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싱가폴을 100으로 한 경우), 이직률(이직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노동의 유연성(근로자가 기꺼이 재훈련을 받거나 전환배치를 받아들이는 정도) 면에서는 한국의 평점이 좋으나, 노동절약적기술(자동화에 대한 종업원의 인지도), 숙련기능공의 풍부성, 작업동기(종업원

〈표 6. 1〉 아시아 주요 경쟁 상대국의 노동력 평가지표의 비교^{1), 2)}

(단위 : rating ; 순위)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노동력 평가(종합) ³⁾				
1980	63(5)	61(4)	80(1)	73(2)
1985	71(5)	72(4)	76(1)	73(3)
1991	61(10)	74(3)	78(1)	71(4)
1992	57(12)	73(3)	79(1)	69(5)
1. 제도적 측면				
1980	74(2)	51(26)	74(2)	73(3)
1985	68(3)	52(19)	72(1)	71(2)
1991	64(4)	54(19)	71(1)	68(2)
1992	61(5)	58(7)	72(1)	64(2)
2. 상대적 생산성				
1980	32(16)	25(26)	78(1)	59(2)
1985	60(3)	59(4)	72(1)	62(2)
1991	58(9)	60(7)	79(1)	60(7)
1992	53(12)	54(10)	80(1)	57(8)
3. 근로자의 태도				
1980	92(4)	93(2)	90(5)	93(2)
1985	88(3)	94(2)	83(6)	85(4)
1991	55(21)	99(1)	81(3)	76(4)
1992	52(24)	99(1)	81(3)	77(4)
4. 기능 수준				
1980	53(21)	100(1)	80(12)	67(16)
1985	68(19)	100(1)	78(14)	82(13)
1991	72(18)	100(1)	84(14)	90(9)
1992	68(22)	100(1)	85(15)	89(12)

주 : 1) 미국의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의 조사에 근거한 것이며 100점 만점임. () 내의 수치는 순위를 나타냄.

2) 1992년 현재 노동력 평가(종합)가 12위 이내 인 국가와 rating은 싱가포르(79), 스위스(75), 일본(73), 벨지움(71), 대만(69), 네델란드(65), 미국(64), 노르웨이(62), 프랑스(61), 스웨덴(58), 한국(57), 오스트리아(57)의 순서임.

3) 노동력을 평가하는 종합지수로서, 제도적 측면(30%), 상대적 생산성(30%), 근로자의 태도(25%), 기능수준(15%)의 네가지 기준에 근거함.

① 제도적 측면 : 다음의 9개의 기준 즉 노동법, 노동법의 실제적용, 노조의 적대적 태도 정도, 노조의 부패정도, 단체교섭의 실패, 종업원의 의사결정권한, 채용 및 해고의 신속성, 강제적인 이익 및 稅制(compulsory benefits and taxes), 국적을 버린 종업원에 대한 제한 등에 근거하였음.

② 상대적 생산성 : 日給에 대한 1日 노동 생산성의 비율을 SDR로 계산한 것임.

③ 근로자 태도 : 작업일 수 1000日 중 분규일수와 훈련이외의 이유로 결근한 비율로 추정하였음.

④ 기능 수준 : 노동시장에서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숙련된 훈련받은 기능자가 있는지에 근거함.

자료 :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 National Productivity Board, Singapore, *Key Statistics on the Productivity Movement*(1981-1991), June. 1992.에서 재인용.

이 회사의 목표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도) 측면에서의 평점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몇몇 지표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경우 근로의 質, 근로자의 조직 沒入度 작업동기 면에서의 낙후성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표 6. 2〉 국가 경쟁력 지수

(단위 : 싱가포르 = 100)

	한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1. 노동절약적 기술(자동화에 대한 종업원의 인지도)				
1986	80	94	100	91
1991	81	109	100	90
2. 이직률(이직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1986	92	53	100	98
1991	150	185	100	86
3. 숙련노동력(숙련기능공의 풍부성)				
1986	111	124	100	121
1991	90	96	100	97
4. 작업동기(종업원이 회사의 목표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도)				
1986	110	128	100	107
1991	81	109	100	90
5. 노동의 유연성(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기꺼이 재훈련을 받거나 전환배치를 받아들이는 정도)				
1986	105	110	100	106
1991	150	185	100	8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86 & 1991; National Productivity Board, Singapore, *Key Statistics on the Productivity Movement*(1981-91), June, 1992. 에서 재인용.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임금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의욕과 관련하여 생산성향상이 부진한 이유를 보는 勞使의 시각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생계비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주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는 경쟁상대국인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낮으나 임금수준은 비슷하고 80년대 후반이후 임금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임금수준이 낮지 않은데도 1인당 GDP가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취업구조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인구구조 측면에서 勞動力 인구의 비율이 낮고, 취업자 중 정규근로자, 피고용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弗貨表示 勞賃單價의 分解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매우 높은 반면, 自國通貨의 평가절상은 낮게 나타났고, 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달러貨表示 노임단가의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어 가격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貨의 평가절상이 낮았기 때문에, 경쟁상대국 보다 환률면에서도 덜 시련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경제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의 잠재능력도 낮아 향후 국제경제의 질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시련을 감내할 능력을 배양해야 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서울의 물가와 주요도시간의 물가비교, 소비자물가인상률의 비교, 주택보급률의 低位, 危弱한 사회보장체계등을 볼 때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 대만과의 가계수입, 지출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수입이 낮은 주 요인 중의 하나가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적고, 가구주의 연령이 낮으며, 세대주의 수입 특히 정기적수입이 적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패턴을 보면 한국의 엔겔지수가 일본보다는 높으나 대만보다는 오히려 낮으며, 가계축자율(평균저축성향)이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비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패턴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저축성향이 이렇게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주택청약부금, 근로자 재형저축, 향후 용자를 받기 위한 상호부금,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 등 강제성저축이 많은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5분위별 소비패턴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격차를 보면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격차가 매우 크나 대만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배를 十分位계수, Gini계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한국의 소득분배는 일본보다는 훨씬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의 韓·日간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세대주수입 특히 세대주의 정기수입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 가구원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5분위별로 볼 때 한국은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주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이외 기타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나, 일본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세대주 수입 특히 정기수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대조적이다.

최근에 발간된 KDI의 연구결과를 보면(權純源, 高日東, 金寬永, 金善雄, 『분배불평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1992. 12) 한국의 경우 富의 분배가 소득분배보다 더 불평등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DI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十分位계수, 지니계수, 타일계수 등을 통해 본 소득분배는 '80-'85년 기간 중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지니계수가 0.389에서 0.345로), '85-'88년 기간 중의 개선정도는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지니계수가 0.345에서 0.336으로), 시부의 경우 군부에 대해 소득분배가 덜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볼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가계적자율이나 앵겔계수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격차가 크며 특히 고소득 근로자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비중이 높다는 등 분배의 불형평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flow)의 분배도 문제지만 한국의 경우 富(stock)의 분배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높아 공정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는데 비해 하향적 지위불일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이 결과 소득수준에 대한 절대적 불만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불만족도 개선은 물론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분배와 성장의 조화, 비용효과적 복지정책의 추구 등 분배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사려된다.

노사관계의 국제비교를 보면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의 경우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고용불안정에 따르는 문제점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도 갈등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고 임금단체교섭의 과학화, 합리화의 미진, 경영정보 共有의 부진, 노조의 경영정보 수집능력의 부족, 근로자 경영참가의 부족 등으로 경제민주화(종업원의 재정참여), 산업민주화(의사결정 및 統制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참여)에 따르는 반사적이익 즉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개선, 조직의 효율성제고가 미진한 실정이다. 노조의 준비부족과 사용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중 많은 부분을 經營大權으로

인식하여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종업원의 愛社心, 沒入度, 作業動機의 감소를 초래하여 근로태도 및 근로의 質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즉 근로태도, 근로의 質 측면에서보면 한국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評點이 낮게 나타나고, 특히 근년에 들어 근로태도 및 근로의 質의 급격한 하락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경제활동 참여율의 低位, ② 취업구조의 불안정, ③ 가구당 취업인구가 적은 점, ④ 하향적 지위불일치의 증대 등 분배 특히 富의 분배상의 불형평성에 따른 절대적 불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의 加重, ⑤ 노사관계 측면에서 불 때 갈등적 노사관계의 지속, 경영정보의 共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종업원의 소외 등 경제 및 산업 민주화 진전의 부진, ⑥ 최근에 들어 3D직종의 기피 및 근로태도면에서 나타나는 동기유발 기능의 약화, 근로의 質的향상의 퇴보 등 노동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제고노력이 없이는 한국경제의 先進化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勞使간의 인식전환과 勞使間의 관계개선(갈등관계에서 win-win 狀況을 강조하는 협조적 관계로의 이행)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순원, 고일동, 김관영, 김선웅, 『분배불평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2.
 ———, 「국민생활수준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1. 가을.
 김수곤, 「우리나라 임금체제의 문제점」, 한국개발연구원, mimeographed, 1984.
 ———, 『한국노사관계론』, 경문사, 1992.
 김영배, 김재원, 김태홍, 『임금과 성과배분』, 한국경영자총협회, 1988.
 김재원, 「생계비의 국제비교」, mimeographed, 임금복지전문연구회, 1993. 11.
 ———, 김순호, 『동남아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 한국능률협회, 1990.
 ———, 진수희, 『산업내 근로행태의 변화와 근로의 질 제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2.
 ———, 「한국사회의 경제갈등과 임금 및 노동정책」, 『현대사회』, 1989. 가을. 경제사회개발원, 1990.
 사회개발원, 1991.
 ———,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의 역할」,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의 역할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한국미래연구학회,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1991.
 ———, 「한국의 임금타결행태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91.

- 김황조, 김재원, 『단체교섭론』, 법문사, 1993.
- 배무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 1991.
- 안춘식, 안희탁, 『한국기업 승진 승급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1.
- 안희탁, 『한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 -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1990.
- 양병무, 안희탁, 김재원, 박준성, 『한국기업의 임금관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2.
- 윤성천, 「단체교섭과 인사권에 관한 문제」,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5회 노사발전 세미나, 한국노사발전연구원, 1991.
- 이창욱, 「일본기업의 성과배분사례」,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1991.
- 장현준, 김재원, 『한국의 적정임금』,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정인수, 『성과배분 - 성과배분제도 도입과 검토사항』,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최종태,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5회 노사발전세미나, 한국노사발전연구원, 1991.
- 황정현, 『임금동기유발을 위한 임금체계도입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 인적 및 직무특성차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Anantaraman, V., *Singapor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McGraw-Hill Book Co., 1990.
- Blinder, Alan S., *Paying for Productivity : A Look at the Evid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0.
- Committee for the Study of Labor Issues,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 *Choices for Reform and Renewal-Nikkeiren Position Paper*, 1993.
- Gong, Yan, "China Speeds up Labor Reform", *Chines Trade Unions*,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June 1992.
- , "New Trade Union Law of our Times", *Chines Trade Unions*,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September 1992.
-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s, *The Current Labor Economy in Japan*, 1992.
- Lee, Kok Wai, *Flexible Wage System: Models and Worked Examples*(2nd ed.),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1989.
- Ochiai, Kozo, *Information Sharing : How the Japanese Prepare Themselves for Collective Bargaining*, National Productivity Board of Singapore, 1987.
- Poole, Michael, *The Origins of Economic Democracy: Profit-sharing and Employee-shareholding Schemes*, Routledge, 1990.
- , Glenville Jenkins, *The Impact of Economic Democracy: Profitsharing and Employee-shareholding Schemes*, Routledge, 1990.
-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Survey Report on Performanc Related Payment Schemes*, 1992/93.
- Sun, Guangguan and Ming Wei, "Workers Make a Hit in Reform," *Chines Trade Unions*,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December 1992.
- Tsuchiya Kazuo, Kozo Ochiai and Lillian Lee, *Wage Flexibility : Lessons from Four Companies*, National Productivity Board of Singapore, 1988.
- Weitzman, Martin L., *The Share Economy : Conquering Stagf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中華民國 行政院 勞工委員會 編印, 勞工法規 彙編, 1990.
-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中國工會 統計年鑑』, 1992.

〈부록〉: 各國 자료의 출처

1. 한 국

- (1) GDP (경상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40~43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3
- (2) GDP (불변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82-85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3
- (3) 비농림어업 GDP (불변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82~85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8
- (4) 제조업 GDP (불변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82~85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8
- (5) 피용자보수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206~225
- (6) 영업잉여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206~225
- (7) 총취업자수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주요지표』, 1993. 8, p. 13
- (8)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p. 22-23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 p. 157
- (9) 제조업 취업자수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p. 22-23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 p. 157
- (10)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1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주요지표』, 1993. 8. p. 13
- (11) 인구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3
- (12) 15세 이상 인구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17

1) 지면의 제약상 각국자료를 실지로 하였음. 자료나 본문에 나타난 變數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 하기 바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 p. 156
- (13) 제조업 임금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52
- (14) 비농림어업 임금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52
- (15) 환율 (한국은행 내부자료)
- (16)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1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 p. 156
- (17) 실업률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1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3 2/4. p. 156
- (18) 근로시간, 제조업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80~'92
- (19) 근로시간, 비제조업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80~'92
- (20) 비농림어업 GDP (경상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78~81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4
- (21) 제조업 GDP (경상가격)
한국은행, 『국민계정(1990)』 Pp. 78~81
한국은행, 『국민계정(1993)』 p. 214
- (30) 피용자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2)』

2. 일 본

- (1) GDP (경상가격)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0. Pp. 108~109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80~81
- (2) GDP(불변가격)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158~161
(1985년의 경우 불변GDP와 경상GDP가 일치해야 되나,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는데도,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 (3) 비농림어업 GDP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158~161
(1985년의 경우 불변GDP와 경상GDP가 일치해야 되나,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는데도,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4) 제조업 GDP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2. pp. 158~161

(1985년의 경우 불변GDP와 경상GDP가 일치해야 되나,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는데도,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5) 피용자보수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0. pp. 108~109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80~81

(6) 영업잉여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0. pp. 108~109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80~81

(7) 총취업자수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 197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하권) 1990. pp. 88~91

(8)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 197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하권) 1990. pp. 88~91

(9) 제조업 취업자수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 197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하권) 1990. pp. 88~91

(10)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100-실업률)]*100에 의해 계산함.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0. p. 144 (1975, 1980, '84~'87)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2. pp. 104~105 ('85~'89)

(11) 인구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3)』, p. 303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59

(12) 15세 이상 인구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0. p. 144 (1975, 1980, 1984~87)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2. p. 104~105 (1985~1990)

(13) 제조업 임금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0. p. 146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pp. 58-59 (1970)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p. 810 (1982~1991)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4), p. 608 (1974~1983)

ILO, *Bulletin of Labor Statistics* (1993-2), p. 102

(14) 비농림어업 임금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1992. p. 56 (1970)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p. 800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4), p. 599

ILO, *Bulletin of Labor Statistics* (1993-2), p. 93

- (15) 환율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83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 *The Current Economy in Japan*, 1992, p. 53
- (16)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1992, p. 38
- (17) 실업율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71
 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 *The Current Economy in Japan*, 1992, p. 49
- (18) 근로시간, 제조업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1992, p. 96 ('70, '75, '80~'90)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p. 729 ('82~'91)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4), p. 541 ('74~'83)
 ILO, *Bulletin of Labor Statistics* (1993~2), p. 82 '90~'92
- (19) 근로시간, 농림어업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1992, pp. 94-95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1992), p. 722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1984), p. 536
 ILO, *Bulletin of Labor Statistics* (1993-2), p. 76
- (20) 비농림어업과 GDP (경상가격)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150~153
- (21) 제조업 GDP (경상가격)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 년보』, (상권) 1993, pp. 150~153
- (22) 제조업 부문 임금 (円/時)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1990, p. 146
- (30) 피용자수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보고(1990,하권)』, pp. 84~87.
 ——, 『국민경제계산보고(1993)』, pp. 196~7.

3. 싱가포르

- (1) GDP (경상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 (2) GDP (불변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 (3) 비농림어업 GDP (불변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 (4) 제조업 GDP (불변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 (5) 피용자보수 (노동분배율이 경상GDP를 곱해서 구함.)
National productivity Board of Singapore, *Key Statistics on the productivity Movement*, (1981-1991), June 1992, p. 86
- (6) 영업잉여 (자본분배율이 경상GDP를 곱해서 구함.)
National productivity Board of Singapore, *Key Statistics on the Productivity Movement*, (1981-1991), June 1992, p. 86
- (7) 총취업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58
- (8)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58
- (9) 제조업 취업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58
- (10) 경제활동인구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rs,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92*, 1992. 10. p. 23
- (11) 인구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29
- (12) 15세 이상 인구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p. 30-31
- (13) 제조업 부분 임금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64
- (14) 비농림어업 임금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64
- (15) 환율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84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3)』 p. 328
- (16) 경제활동 참가율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rs,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92*, 1992. 10. p. 23.
- (17) 실업률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rs,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92*, 1992. 10. p. 23
- (18) 근로시간, 제조업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66
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Analysis of Main Aggregates, 1988~1989*, 1991, p. 71
- (19) 근로시간, 비농림어업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66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89)*, p. 71

(20) 비농림어업 GDP (경상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21) 제조업 GDP (경상가격)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1)*, p. 85

(30) 피용자수

ILO, *Yearbook of Statistics*, 1975, p. 110; 1980, p. 58 ; 1982, p. 114 ; 1983, p. 108 ; 1984, p. 82 ; 1986, p. 84 ; 1988, p. 100 ; 1991, p. 96 ; 1992, p. 96.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ur, Singapore, *Report on Labo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92)*, p. 42.

- * 1981, 82, 84년의 경우 (피용자/취업자)의 비율은 0.788로 가정하였고, 1990년의 경우 0.813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참고로 이 비율은 83, 85년의 경우 0.788, 0.789이었음. 90년의 경우 89, 91년의 수치를 가지고 補間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4. 대 만

(1) GDP (경상가격)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p. 30~35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25

(2) GDP (불변가격)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p. 68~75

- ** 86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1. 033819(즉 1985년 불변가격GDP를 경상가격GDP로 나눈 값)로 나누어서 85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산정하였음.

(3) 비농림어업 GDP (불변가격)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 69, pp. 68~75

- ** 86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1. 1125952(즉 1985년 불변가격GDP를 경상가격GDP로 나눈 값)로 나누어서 85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산정하였음.

(4) 제조업 GDP (불변가격)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p. 68~75

- ** 86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1. 0505777(즉 1985년 불변가격GDP를 경상가격GDP로 나눈 값)로 나누어서 85년 불변시계열 자료를 산정하였음.

(5) 피용자보수

-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p. 42~47
- (6) 영업잉여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epublic of China, *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Republic of China (1992)*, pp. 42~47
- (7) 취업자 총 수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7
- (8)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7
- (9) 제조업 취업자 수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7
- (10) 경제활동 인구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5
- (11) 인구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6
- (12) 15세 이상 인구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5
- (13) 제조업 부문 임금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20
- (14) 비농림어업 임금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p. 56
行政院勞工委員會編印. 『勞工統計 重要指標, 제56期』, 1992. 11.
- (15) 환률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1)』, p. 284
통계청, 『주요경제지표(1993)』, p. 328 ('71-'90. 91년은 % Δ 이용)
- (16) 경제활동 참가율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6
- (17) 실업률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16

(18) 근로시간, 제조업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p. 96

(19) 근로시간, 비농림어업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1992)』, p. 94

Manpower Planning Department,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Manpower Indicators*, April 1992, pp. 9~10, pp. 25~26.

* 1991년 수치는 업종별 월근로시간 과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비농림어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가율(91년 대비 1.0%)을 구하여 상정함.

(20) 비농림어업 GDP (경상가격)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41

(21) 제조업 GDP (경상가격)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p. 41

(30) 피용자수

行政院主計廳編印, 중화민국. 대만지구 인력자원 통계월보, 1992. 12. P. 9.

行政院主計廳編印, 중화민국. 대만지구 인력자원 통계년보, 1989.

Manpower Planning Department,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Manpower Indicators*, April 1992, pp. 11~12

* 1992년 수치는 11월 까지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